LEADING
Weekly
Market Insight

2013년 8월 19일

# 갭 축소가 진행중인 글로벌 금융시장

**미국, 유럽 경제지표 호조, 미국채권 금리 급등, 미국주식 2주 연속 하락**

- **미국 시장 2 주 연속 조정 국면 진행 불구, 유럽 이머징 시장 강세**

지난 주 글로벌 주식시장은 미국의 고용지표 개선 추세가 빨라지고 유럽의 GDP 가 6 분기 만에 (+)로 전환하는 등, 미국과 유럽의 경제지표가 전반적인 호조세를 보이면서 미국 양적완화 축소가 시장의 예상대로 9 월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 10 년 국채 금리가 24.7bp 상승한 2.83%까지 급등하여 2011 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미국 주식시장은 2% 내외의 조정을 보이며 2 주 연속 하락하였다.

**유럽, 이머징 주식 강세, 남유럽 국채 선진국 국채대비 스프레드 축소**

한편, 유럽 경제지표 호전과 아울러 중국의 통신 및 환경산업 지원 관련 정책 발표와 함께 지방정부에 국유 및 국책 은행의 자금 지원 발표로 경착륙 우려가 크게 경감되면서 유럽 주식시장과 중국을 비롯한 이머징 주식시장은 강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금, 은을 비롯한 귀금속은 물론 비철금속을 비롯한 원자재 가격의 반등세도 지속되고 있다.

채권시장의 경우에도 미국은 물론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서유럽 선진국 국채 금리는 20bp 이상 상승한 반면, 상대적으로 금리 수준이 높고 위험도가 높은 스페인, 이태리, 그리스 등 남유럽 재정위기국들의 국채금리는 유럽 성장률 개선과 함께 10~20bp 하락하면서 수익률 갭은 축소되고 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미국 주식 조정, 유럽, 이머징 주식 상승, 남유럽 국채의 선진국 국채 대비 스프레드 축소와 같은 현상은 유럽, 중국 경제 전망이 개선되면서 그 동안 과도했던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쏠림 현상이 정상화되는 단계로 이해할 수 있다.

**한국주식시장 저평가 메릿 부각되며 외국인 순매수 강화**

또한, 지난 주의 경우 아시아 지역 이머징 시장 가운데 한국에 대한 외국인 주식 순매수 강도가 가장 강했는데, 이는 칼 아이칸이 애플 주식 매집 후 자사주 매입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삼성전자 등 한국 IT 주들의 상대적 저평가가 부각된 점과 글로벌 경기 회복시 경기에 민감한 섹터 비중이 높은 한국 주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한국시장의 경우 이머징 시장 가운데에서 고용과 물가 등 거시경제 지표가 가장 안정된 국가이며,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도 낮다는 점에서 하반기 경기 회복이 가시화 될 경우 반등 폭이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들의 추가적인 관심도 제고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Exhibit 1 이머징 국가 – 실업률, 물가상승률, P/E**

| | 실업률 (%) | 물가상승률 (%) | P/E (Trailing) | 총계 |
|---|---|---|---|---|
| 한국 | 3.2 | 1.0 | 10.1 | **14.3** |
| 중국 | 4.1 | 2.6 | 9.2 | **15.9** |
| 러시아 | 5.4 | 6.9 | 4.8 | **17.1** |
| 태국 | 0.8 | 2.3 | 15.0 | **18.1** |
| 말레이시아 | 3.3 | 1.8 | 16.6 | **21.7** |
| 타이완 | 4.2 | 0.6 | 18.2 | **23.0** |
| 일본 | 3.9 | 0.2 | 21.4 | **25.5** |
| 인도네시아 | 5.9 | 5.9 | 17.7 | **29.5** |
| 필리핀 | 7.5 | 2.7 | 20.6 | **30.8** |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2 이머징 아시아 외국인 증시 유입 규모**

| (백만달러) | 주초 | 월초 | 연초 | 기준일 |
|---|---|---|---|---|
| 대한민국 | **652** | **456** | **-6,727** | **08/16** |
| 인도 | 129 | 234 | 12,589 | 08/14 |
| 인도네시아 | -132 | 123 | -196 | 08/16 |
| 필리핀 | -46 | -10 | 1,615 | 08/16 |
| 타이완 | -190 | -1,401 | 1,490 | 08/16 |
| 태국 | 14 | -317 | -2,823 | 08/16 |
| 베트남 | 4 | 2 | 168 | 08/16 |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 지역별 주식시장 전망

- **미국**

지난 주 일부 지역 제조업 지표를 제외한 경제 지표가 전반적으로 호조세를 보임에 따라 9 월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면서 채권금리 급등과 함께 미국 주식시장은 비교적 큰 폭의 조정이 진행되었다. 금주에는 22 일 7 월 FOMC 의사록 발표가 있다. QE 축소의 시기 및 강도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22~25 일 예정된 잭슨 홀 미팅도, 버냉키 의장이 이미 불참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시장의 주목을 크게 받진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경제 지표로는 21 일, 7 월 기존주택판매와 MBA 주택융자 신청자수를 시작으로 22 일 주택가격지수, 23 일 신규주택판매 등 주택 관련 지표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금리 상승 여파로 주택 시장 회복속도는 다소 둔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이번 주 소매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함께 2 분기 실적시즌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주 월마트의 실적이 부진하게 발표되면서 소비관련주의 주가가 부진했는데, 이번 주 미국의 대형 백화점 체인인 JC 페니(20 일)와 미국 대형할인점인 타겟(21 일)의 실적 발표를 통해 미국의 소매, 소비 상황을 가시적으로 진단할 수 있겠다. 이번 주 주식시장도 양적 완화 축소 우려에 대한 부담이 주식시장을 억누르는 가운데, 주택 등 경기지표가 예상을 상회할 경우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제한된 횡보 장세가 예상된다.

- **유럽**

유로존 2 분기 GDP 성장률, 산업생산, 경기기대지수 등을 통해 유로존의 경기 회복세가 확인되면서 글로벌 시장은 유럽 지역에 주목했고, 범유럽지수인 Euro Stoxx50 은 1.0% 상승했다. 이번 주에는 8 월 제조업, 서비스업 PMI 지표 예비치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지난 7 월 유로존 복합 PMI 지수는 1 년 반 만에 기준선인 50 을 상회한 바 있다. 이러한 추세를 이어가며 8 월 PMI 지표 예비치 역시 유로존의 저금리 유지 및 재정긴축 완화 영향이 긍정적으로 반영돼 회복세가 이이절 것으로 예상한다. 블룸버그 컨센서스에 따르면 8 월 제조업 PMI 지표가 전월 50.3 에서 50.6 으로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7 월 기준선(50)을 상회하지 못한 서비스업 PMI 지표 역시 50.2 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기준선 상회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유럽의 개선된 거시지표 흐름과 미국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점 등으로 인해 글로벌 투자 자금이 유럽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PMI 지표를 통한 유로존의 경기 회복세가 재확인된다면 자금 이동의 속도는 가속될 것으로 판단한다.

- **아시아**

최근 중국 정부의 내수확대와 인프라 투자를 통한 미니 경기부양책의 잇따른 발표와 국유 및 국책은행의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커져가고 있다. 지난주 발표된 정보통신소비와 친환경산업 정책에 이어 17 일 정부는 <"브로드밴드 중국" 전략 및 실시방안>을 발표하여 2020 년까지 브로드밴드 보급률 70%, 3G/LTE 보급률을 85%을 목표로, 브로드밴드 인프라설비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산업의 활황이 예상된다. 한편 지난주 금요일 광대증권 시스템오류로 인한 증시 급등락은 증권사 시스템에 대한 신뢰문제와 함께 당일 추종 매매 청산 등으로 인해 단기적 부정적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한국**

금주 한국증시는 미국 양적 완화 축소 우려에도 불구, 주요 수출 상대국인 중국, 유럽, 미국 등의 경제 지표 호조로 전 주에 이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수급 측면에서는 외국인과 함께 동반 순매수를 지속해 온 연기금의 순매수 스탠스 유지 여부와 박스권 상단 근접에 따른 국내 투자자들의 매도 강도 강화 여부가 주가 상승 강도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주 예정된 백화점, 도소매 판매 실적 발표를 통해 하반기 국내 소비동향과 소비관련주의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1. 미주

### ➢ 경제

지난 주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들은 미국 경제의 완만한 회복 추세 진행을 재확인 시켜 주며 양적 완화 축소 우려는 높여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역 제조업 지표를 제외한 고용, 주택, 물가 등 전반적인 지표 개선세가 다시 한번 확인되었는데, 지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2만건을 기록하며 2007년 10월 이후 5년10개월 만에 최저치를 보였고, 미국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도 전달보다 0.2% 오르며 FRB의 디플레이션 우려를 완화시켰다. NAHB 8월 주택시장지수는 59로 2005년 11월 이후 7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미국의 7월 소매판매 역시 회복세가 더디어졌지만 전달보다 0.2% 증가해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고, 금리 상승 부담에도 7월 신규주택착공이 전월보다 5.9% 늘어난 89만6000건을 기록하며 미국의 경제성장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기대가 커졌다. 반면 뉴욕 제조업경기를 보여주는 이달 엠파이어스테이트지수는 8.24로 지난달의 9.46보다 낮아졌다.

### ➢ 주식

고용지표를 주축으로 경기개선 신호가 뚜렷해지자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조치가 머지 않았다는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3대 지수 모두 주간 기준으로 2주일째 하락세를 보였다. 다우 지수가 2.2%, S&P500 지수가 2.1%, 나스닥 지수가 1.6% 하락했다. 섹터 별로는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면서 배당 수익률이 높은 S&P500 유틸리티 섹터가 주간 단위로 4.4% 하락했고, 금리 상승 부담에서 벗어 날 수 없는 경기 소비재 섹터가 그 동안 상승분에 대한 차익실현 매물도 출회되면서 주간 단위로 3.3% 하락했다. 필수소비재 섹터, 헬스케어 섹터도 3.2%, 3.1%로 크게 하락했는데, 월마트의 실적 부진에 따른 소비 관련주들의 실망 매물과 향후 전망 우려가 가세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애플이 주간 단위로 10% 이상 상승한 영향으로 시스코 시스템즈의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IT 섹터가 0.3% 하락에 그쳤다. 유럽, 중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산업재 섹터와 소재 섹터가 각각 1.3%, 1.6% 하락에 그치면서 10개 섹터 내 상대적으로 우수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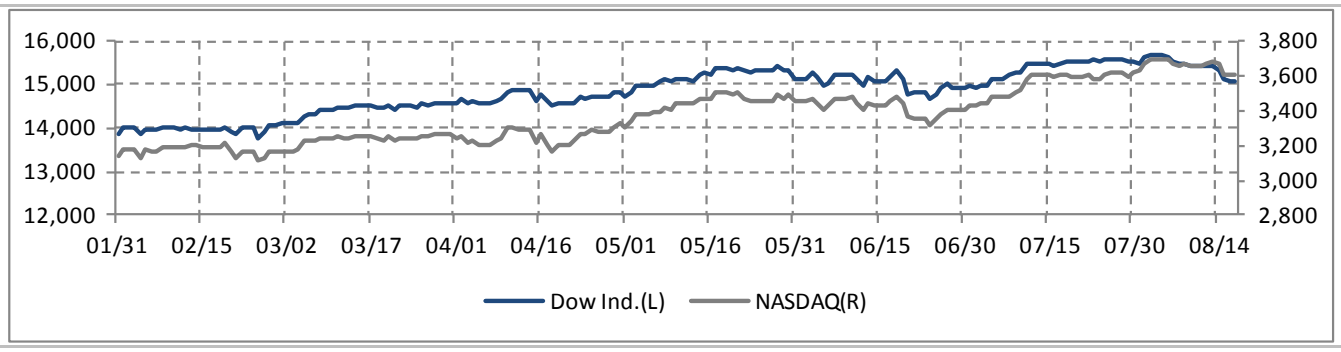
### ➢ 채권 & 외환

미국의 경제 회복이 확인되자 9 월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국 채권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다. 미국 10 년만기 국채수익률은 주간 단위로 24.7bp 상승한 2.83%를 기록하며 2011 년 이후 최고 수준을 보였다. 달러 역시 이른 출구 전략 가능성에 주요 통화 대비 소폭 강세를 보였다.

**Exhibit 3 주간 경제 지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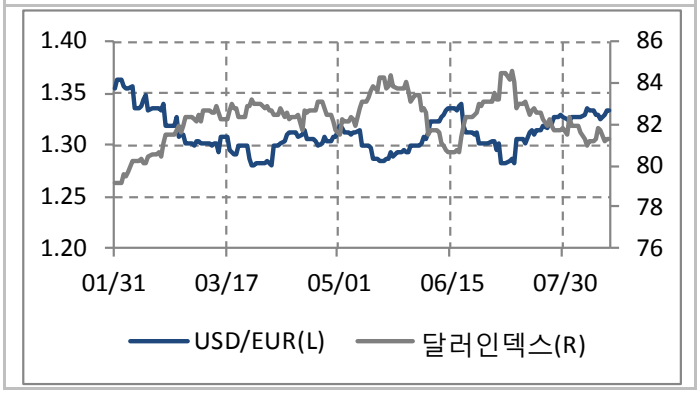
| 구분 | 일자 | 국가 | 지표명 | 단위 | 지표 | | | 변화치 | |
|---|---|---|---|---|---|---|---|---|---|
| | | | | | 시장 예상치 | 발표치 | 직전치 | 시장 대비 | 직전 대비 |
| 발표 | 2013-08-13 | 미국 | 월간 재정수지 | ($십억) | -96.00 | -97.60 | -69.60 | -1.60 | -28.00 |
| 발표 | 2013-08-13 | 미국 | 수입물가지수 전년비 | (%) | 1.50 | 1.00 | 0.10 | -0.50 | 0.90 |
| 발표 | 2013-08-13 | 미국 | 소매판매 추정 전월비 | (%) | 0.30 | 0.20 | 0.60 | -0.10 | -0.40 |
| 발표 | 2013-08-14 | 미국 |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 (%) | | -4.70 | 0.20 | | -4.90 |
| 발표 | 2013-08-14 | 미국 | PPI 전년비 | (%) | 2.40 | 2.10 | 2.50 | -0.30 | -0.40 |
| 발표 | 2013-08-15 | 미국 |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 (천) | 335.00 | 320.00 | 335.00 | -15.00 | -15.00 |
| 발표 | 2013-08-15 | 미국 | 실업보험연속수급신청자수 | (천) | 3,000.00 | 2,969.00 | 3,023.00 | -31.00 | -54.00 |
| 발표 | 2013-08-15 | 미국 | CPI (전월대비) | (%) | 0.20 | 0.20 | 0.50 | 0.00 | -0.30 |
| 발표 | 2013-08-15 | 미국 | 8월 제조업지수(뉴욕) | | 10.00 | 8.24 | 9.46 | -1.76 | -1.22 |
| 발표 | 2013-08-15 | 미국 | 설비가동률 | (%) | 77.90 | 77.60 | 77.70 | -0.30 | -0.10 |
| 발표 | 2013-08-15 | 미국 | NHAB 주택시장지수 | | 57.00 | 59.00 | 56.00 | 2.00 | 3.00 |
| 발표 | 2013-08-16 | 미국 | 신규주택착공 | (천) | 900.00 | 896.00 | 846.00 | -4.00 | 50.00 |
| 예정 | 2013-08-21 | 미국 |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 (%) | | | -4.70 | | |
| 예정 | 2013-08-21 | 미국 | 기존주택매매 | (백만) | 5.15 | | 5.08 | | |
| 예정 | 2013-08-22 | 미국 |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 (천) | 330.00 | | 320.00 | | |
| 예정 | 2013-08-22 | 미국 | 실업보험연속수급신청자수 | (천) | 2,970.00 | | 2,969.00 | | |
| 예정 | 2013-08-22 | 미국 | Markit 미국 PMI 잠정 | | 54.20 | | | | |
| 예정 | 2013-08-22 | 미국 | 주택가격지수(전월대비) | (%) | 0.60 | | 0.70 | | |
| 예정 | 2013-08-22 | 미국 | 선행지수 | (%) | 0.50 | | 0.00 | | |
| 예정 | 2013-08-23 | 미국 | 신규주택매매 | (천) | 487.00 | | 497.00 | | |

**Exhibit 4 미국 주요 지수 추이**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5 달러 인덱스 추이**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6 미국 10 년 채권 수익률 추이**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7 미국 주요 섹터별 수익률**

| | 종가 | 수익률(%) | | | |
|---|---|---|---|---|---|
| | | (1 주) | (1 개월) | (3 개월) | (YTD) |
| MSCI AC World | 373.1 | -1.0 | 0.3 | -1.2 | 9.8 |
| 다우 종합 | 15,081.5 | -2.2 | -2.5 | -1.8 | 15.1 |
| NASDAQ | 3,602.8 | -1.6 | -0.2 | 3.0 | 19.3 |
| S&P 500 | 1,655.8 | -2.1 | -1.5 | -0.7 | 16.1 |
| S&P 500 에너지 | 593.5 | -1.8 | -1.6 | -1.5 | 11.4 |
| S&P 500 소재 | 256.4 | -1.6 | 1.2 | -1.1 | 7.9 |
| S&P 500 산업재 | 388.4 | -1.3 | 0.8 | 1.8 | 18.1 |
| S&P 500 경기소비재 | 460.3 | -3.3 | -2.1 | 0.9 | 22.4 |
| S&P 500 필수소비재 | 414.2 | -3.2 | -3.1 | -4.1 | 14.8 |
| S&P 500 헬스케어 | 571.1 | -3.1 | -0.9 | 0.6 | 23.4 |
| S&P 500 금융 | 269.5 | -2.0 | -2.2 | 0.4 | 21.8 |
| S&P 500 IT | 512.3 | -0.3 | -0.5 | 0.1 | 10.5 |
| S&P 500 통신서비스 | 151.3 | -2.3 | -5.7 | -9.6 | 3.6 |
| S&P 500 유틸리티 | 189.8 | -4.4 | -4.3 | -6.9 | 6.8 |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8 미국 주요 종목 등락률**

| 종목명 | 종가 | 수익률(%) | | | |
|---|---|---|---|---|---|
| | (USD) | (1 주) | (1 개월) | (3 개월) | (YTD) |
| APPLE INC | 502.3 | 10.5 | 16.8 | 15.6 | -5.6 |
| QUALCOMM INC | 66.9 | 1.0 | 8.2 | 1.9 | 8.1 |
| CATERPILLAR INC | 85.2 | 0.8 | -3.4 | -1.9 | -5.0 |
| NEWS CORP | 16.0 | 0.0 | 4.6 | | |
| BANK OF AMERICA | 14.4 | -0.2 | 3.6 | 7.9 | 24.2 |
| AMERICAN EXPRESS | 75.2 | -0.4 | -4.0 | 4.1 | 30.8 |
| EBAY INC | 52.9 | -0.8 | -6.8 | -5.2 | 3.8 |
| CISCO SYSTEMS INC | 24.3 | -6.8 | -5.6 | 1.6 | 23.5 |
| CELGENE CORP | 132.5 | -6.7 | -1.9 | 7.3 | 68.8 |
| COMCAST CORP | 42.5 | -4.7 | -3.3 | -0.8 | 13.9 |
| HOME DEPOT INC | 75.4 | -4.5 | -6.0 | -1.8 | 21.9 |
| DIRECTV | 59.6 | -4.4 | -8.4 | -8.0 | 18.8 |
| AMGEN INC | 104.9 | -4.3 | 0.8 | -0.1 | 21.7 |
| AMAZON.COM INC | 284.8 | -4.2 | -7.2 | 7.8 | 13.5 |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9 미국 주요 채권 지표**

| 주요 채권 | 종가(%) | 수익률(bp) | | |
|---|---|---|---|---|
| | | (1 주) | (1 개월) | (3 개월) |
| 국고채 10년 | 2.83 | 24.7 | 33.6 | 87.5 |
| 국고채 5년 | 1.56 | 20.9 | 25.4 | 73.3 |
| LIBOR 3M | 0.26 | -0.1 | -0.2 | -1.0 |
| EUR-LIBOR 3M | 0.15 | -0.1 | 1.0 | 3.4 |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10 달러 환율 추이**

| 주요 환율 | 종가 | 통화가치 변동률(%) | | |
|---|---|---|---|---|
| | | (1 주) | (1 개월) | (3 개월) |
| 달러 인덱스 | 81.26 | 0.2 | -1.8 | -3.6 |
| USD/EUR | 1.33 | -0.1 | 1.4 | 3.8 |
| JPY/USD | 97.53 | -1.4 | 2.2 | 5.8 |
| CNY/USD | 6.11 | 0.1 | 0.3 | 0.4 |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 2. 유럽

### ➢ 경제

지난 주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 산업 생산, 경기 기대지수가 호조세를 보여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주 발표된 유로존 2 분기 GDP 성장률은 전기비 0.3% 증가하여 시장 컨센서스 0.2%를 상회했고, 2011 년 3 분기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특히 유로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독일과 프랑스의 개선세가 유로존 회복을 주도하는 모습이었다. 독일의 2 분기 GDP 가 전분기대비 0.7% 상승했고, 프랑스가 0.5% 상승했다. 한편 재정위기국가들의 침체는 지속되는 모습이었다. 이탈리아의 GDP 는 0.2% 하락해 8 분기 연속 하락했고 스페인도 0.1% 하락해 6 분기 연속 하락했다. 단, 스페인의 경우 경기 침체 강도는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한편 포르투갈이 1.1% 성장하며 큰 폭의 회복세를 나타내며 남유럽 국가 중 성장세가 부각되었다. 한편 유로존 6 월 산업생산은 0.7% 증가하며 2 개월 만에 증가해 제조업 경기 개선 기대감을 높였고, 유로존 8 월 ZEW 경기기대지수는 44.0 으로 4 개월 연속 상승하며 체감 경기개선세가 지속되며 경제주체들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유로존의 6 월 수출도 석 달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무역 수지가 개선됐다. 하지만 7 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 개월 연속 유럽중앙은행의 물가 목표치 2%를 하회해 아직 수요가 충분치 않음을 보였다.

### ➢ 주식

지난 주 미국의 양적 완화 조기 축소 우려가 글로벌 증시에 부담을 준 가운데 유럽 지역의 경기 회복 기대감이 대두되며 법유럽지수인 Euro Stoxx50 이 주간 단위로 1% 상승했고, 유로존 2 분기 GDP 성장률 개선에 크게 일조한 독일의 DAX 지수가 0.6% 상승, 프랑스 CAC40 지수가 1.2% 상승했다. 글로벌 자금이 선진 시장 중 미국이 아닌 유럽으로 유입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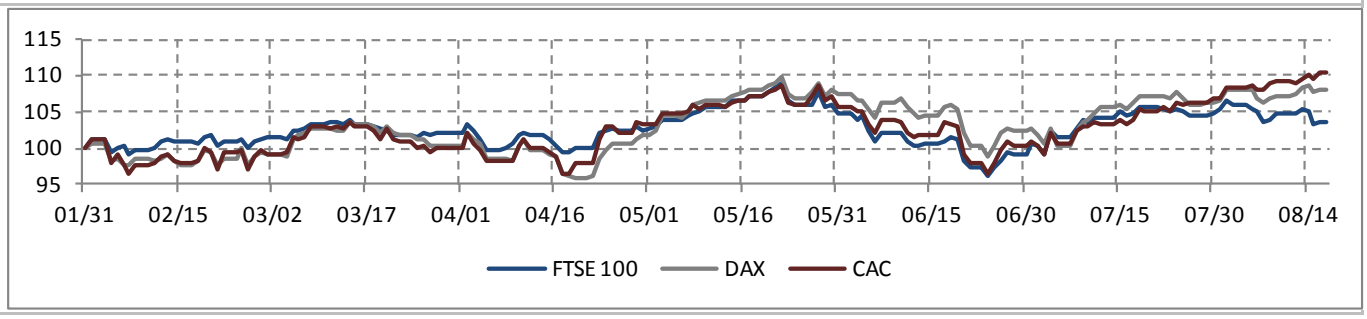
### ➢ 채권 & 외환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한 유로존의 2 분기 GDP 발표로 재정위기국 국채 리스크가 감소하며 남유럽 국가 중심으로 국채 수요가 높아지면서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의 국채 수익률이 각각 13.6bp, 20.0bp, 12.2bp 하락했다. 한편 프랑스, 독일, 영국의 10 년 국채 수익률은 상승하면서 재정위험국과 선진유럽국의 국채 스프레드가 축소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향후 재정위험국 국채 수요는 감소 가능성은 있으나, 높은 수익률에 따른 수요가 지속돼 금리 상승폭은 제한될 것으로 판단한다. 단, 9 월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과 독일 총선 결과 메르켈 총리의 승리 여부는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 유로/달러는 유럽 경기 회복감에도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로 보합세로 마감했다.

**Exhibit 11 유럽 경제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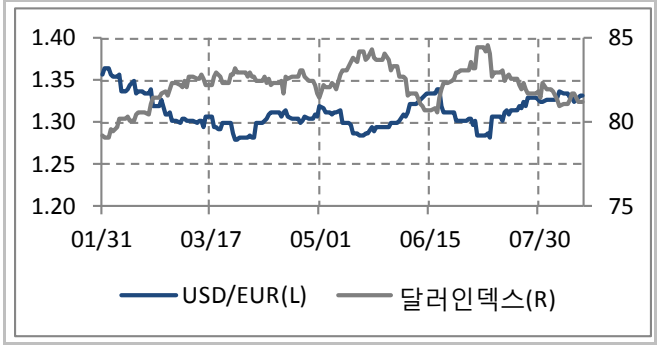
| 구분 | 일자 | 국가 | 지표명 | 단위 | 지표 | | | 변화치 | |
|---|---|---|---|---|---|---|---|---|---|
| | | | | | 시장 예상치 | 발표치 | 직전치 | 시장 대비 | 직전 대비 |
| 발표 | 2013-08-13 | 영국 | 8월 ZEW 경기기대지수 | | | 44.00 | 32.80 | | 11.20 |
| 발표 | 2013-08-13 | 독일 | CPI (전년대비) | (%) | 1.90 | 1.90 | 1.90 | 0.00 | 0.00 |
| 발표 | 2013-08-13 | 영국 | PPI 산출 NSA 전년비 | (%) | 2.10 | 2.10 | 2.00 | 0.00 | 0.10 |
| 발표 | 2013-08-13 | 영국 | CPI (전년대비) | (%) | 2.80 | 2.80 | 2.90 | 0.00 | -0.10 |
| 발표 | 2013-08-13 | 유로존 | 산업생산 SA MoM | (%) | 1.00 | 0.70 | -0.20 | -0.30 | 0.90 |
| 발표 | 2013-08-14 | 프랑스 | GDP (전기대비) | (%) | 0.2 | 0.50 | -0.20 | 0.30 | 0.70 |
| 발표 | 2013-08-14 | 독일 | GDP SA 전기대비 | (%) | 0.60 | 0.70 | 0.00 | 0.10 | 0.70 |
| 발표 | 2013-08-14 | 유로존 | GDP SA 전기대비 | (%) | 0.20 | 0.30 | -0.30 | 0.10 | 0.60 |
| 발표 | 2013-08-14 | 영국 | 실업수당 청구 변동 | (천) | -15.00 | -29.20 | -29.40 | -14.20 | 0.20 |
| 발표 | 2013-08-14 | 영국 | ILO 실업률 3개월 | (%) | 7.80 | 7.80 | 7.80 | 0.00 | 0.00 |
| 발표 | 2013-08-16 | 유로존 | 6월 무역수지(SA) | (십억) | | 14.90 | 13.80 | | 1.10 |
| 발표 | 2013-08-16 | 유로존 | CPI (전년대비) | (%) | 1.60 | 1.60 | 1.60 | 0.00 | 0.00 |
| 예정 | 2013-08-20 | 독일 | PPI 전년비 | (%) | 0.70 | | 0.60 | | |
| 예정 | 2013-08-22 | 프랑스 | PMI 제조업 | | 50.30 | | 49.70 | | |
| 예정 | 2013-08-22 | 독일 | PMI 제조업 | | 51.10 | | 50.70 | | |
| 예정 | 2013-08-22 | 유로존 | PMI 제조업 | | 50.70 | | 50.30 | | |
| 예정 | 2013-08-23 | 독일 | GDP SA 전기대비 | (%) | 0.70 | | 0.70 | | |
| 예정 | 2013-08-23 | 영국 | GDP (전년동기대비) | (%) | 1.40 | | 1.40 | | |
| 예정 | 2013-08-23 | 유로존 | 소비자기대지수 | | -16.50 | | -17.40 | | |

**Exhibit 12 유럽 주요 증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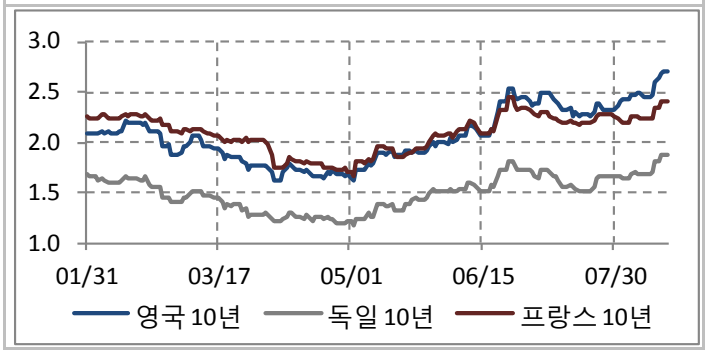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13 유로화 추이**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14 주요국 채권 금리 추이**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15 유럽 주요국 수익률**

| | 종가 | 수익률(%) | | | |
|---|---|---|---|---|---|
| | | (1 주) | (1 개월) | (3 개월) | (YTD) |
| MSCI EMU | 93.9 | 0.9 | 6.0 | 1.8 | 10.4 |
| FTSE EUROTOP 100 | 2,503.0 | 0.3 | 2.6 | -1.8 | 7.7 |
| Euro Stoxx 50 | 2,854.3 | 1.0 | 6.4 | 1.3 | 8.3 |
| 영국 FTSE 100 | 6,500.0 | -1.3 | -1.1 | -3.3 | 10.2 |
| 독일 DAX | 8,391.9 | 0.6 | 1.7 | -0.1 | 10.2 |
| 프랑스 CAC 40 | 4,123.9 | 1.2 | 6.5 | 3.1 | 13.3 |
| 이탈리아 FTSE MIB | 17,677.8 | 2.9 | 12.6 | 0.4 | 8.6 |
| 스페인 IBEX 35 | 8,821.3 | 1.0 | 12.9 | 2.8 | 8.0 |
| 포르투갈 PSI 20 | 6,021.3 | 0.9 | 10.6 | -1.5 | 6.5 |
| 그리스 ASE | 955.2 | -0.2 | 14.7 | -17.1 | 5.2 |
| 스위스 SPI | 7,542.2 | -0.2 | 0.7 | -3.0 | 19.9 |
| 러시아 RTS | 1,333.2 | 0.6 | -4.3 | -5.1 | -12.7 |
| 터키 ISE 100 | 74,275.4 | 1.0 | -3.6 | -19.2 | -5.0 |
| 남아공 TOP40 | 38,623.6 | 3.5 | 6.1 | 5.0 | 11.0 |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16 유럽 주요 종목 등락률**

| 국가 | 종목명 | 섹터 | 시가총액 (USD bn) | 수익률(%) | |
|---|---|---|---|---|---|
| | | | | (1 주) | (1 개월) |
| 영국 | EVRAZ PLC | 소재 | 2.8 | 17.8 | 27.1 |
| 영국 | KAZAKHMYS PLC | 소재 | 2.6 | 11.1 | 25.9 |
| 프랑스 | ALSTOM | 산업재 | 11.5 | 7.7 | 13.5 |
| 프랑스 | ACCOR SA | 경기소비재 | 9.3 | 6.1 | 10.9 |
| 영국 | G4S PLC | 산업재 | 5.5 | 5.9 | 17.5 |
| 영국 | ROYAL BANK OF SCOTLAND GROUP | 금융 | 60.4 | 5.3 | 7.5 |
| 독일 | BASF SE | 소재 | 83.3 | 4.9 | -3.2 |
| 영국 | ROLLS-ROYCE HOLDINGS PLC | 산업재 | 33.0 | -5.3 | -5.8 |
| 영국 | STANDARD LIFE PLC | 금융 | 12.9 | -5.2 | -9.4 |
| 영국 | BABCOCK INTL GROUP PLC | 산업재 | 6.5 | -4.9 | -3.8 |
| 영국 | MARKS & SPENCER GROUP PLC | 경기소비재 | 11.5 | -4.8 | -1.6 |
| 영국 | DIAGEO PLC | 필수소비재 | 79.0 | -4.8 | 0.7 |
| 영국 | INTL CONSOLIDATED AIRLINE-DI | 산업재 | 9.0 | -4.4 | 13.8 |
| 영국 | NATIONAL GRID PLC | 유틸리티 | 42.2 | -4.2 | -3.4 |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17 유로화 환율 / 주요국 채권 지표**

| 주요 환율/채권 | 종가(%) | 변동률(%, bp) | | |
|---|---|---|---|---|
| | | (1 주) | (1 개월) | (3 개월) |
| **USD/EUR** | 1.33 | -0.1 | 1.4 | 3.8 |
| **영국 10년** | 2.70 | 24.4 | 41.1 | 81.9 |
| **독일 10년** | 1.88 | 20.1 | 33.8 | 55.5 |
| **프랑스 10년** | 2.40 | 16.7 | 20.1 | 54.0 |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18 남유럽 채권 지표**

| 주요국 채권 | 종가 | 변동률(bp) | | |
|---|---|---|---|---|
| | | (1 주) | (1 개월) | (3 개월) |
| **이탈리아 10년** | 4.18 | -0.3 | -31.1 | 29.0 |
| **스페인 10년** | 4.35 | -13.6 | -37.4 | 15.6 |
| **포르투갈 10년** | 6.31 | -20.0 | -79.2 | 110.7 |
| **그리스 10년** | 9.49 | -12.2 | -73.8 | 131.5 |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 3. 아시아

### ➢ 경제

7 월 주요 경제지표 호조로 중국경제에 대한 연착륙 가능성이 확대 되었다. 또한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가 담긴 내수확대를 위한 정책 발표와 국유 및 국책은행의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커져가고 있다. 지난주 정부는 내수확대의 일환으로 정보통신소비와 친환경 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연평균 성장률을 각각 20%, 15%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국영은행인 농업은행과 상해시 정부 간에 2,500 억 위안규모의 자금지원 계약에 이어 국책은행인 국가개발은행이 하북성,강소성,청해성과 각각 대규모 인프라 건설을 위한 자금 대출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 되었다.

일본 6 월 기계수주는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선박과 전력을 제외한 핵심 기계수주의 완만한 회복세로 YoY+4.9%을 기록하여 예상치(YoY+2.6%)를 상회하였다.

금주는 중국 외국인직접투자, 8 월 HSBC 제조업 Flash PMI 발표와 일본 무역수지 발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 주식

지난주 중국증시는 전월 실물경기지표 호조, 정부의 내수확대를 위한 산업정책과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전주에 이어 상승장을 보였다. 금요일 중국증시는 광대증권의 프랍트레이딩팀의 차익거래시스템 오류로 당일 상해종합증시는 장중 5.6%로 급등하다가 약보합으로 마감하는 해프닝이 발생하였다. 일본증시는 6 월 기계수주 지표 개선과 법인세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 초반 상승세를 보이다가 미국 양적완화 조기종료에 대한 우려에 엔화강세를 보이면서 수출주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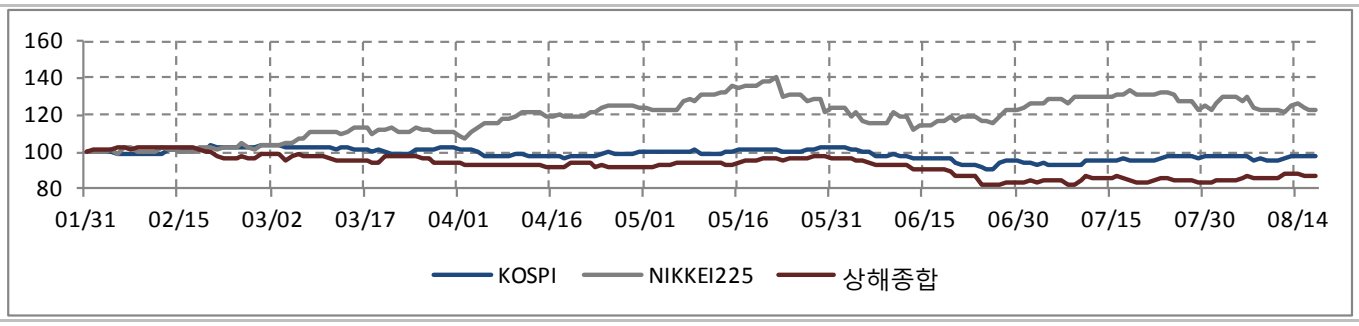
### ➢ 채권 & 외환

중국 경기회복 낙관론과 미국 양적 완화 조기종료 우려로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위안화 환율은 전주에 이어 6.11 대를 유지하면서 강세를 보였다. 엔화는 주 후반 소폭 반등에도 불구 아베 총리의 법인세 인하 검토 지시 발언 소식으로 주중 약세를 지속하여 달러화에 비해 전주 대비 1.35% 하락한 97.53 대로 마감하였다.

**Exhibit 26 주요 경제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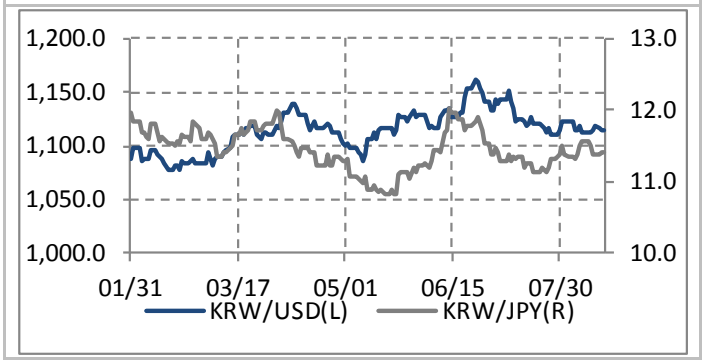
| 구분 | 일자 | 국가 | 지표명 | 단위 | 지표 | | | 변화치 | |
|---|---|---|---|---|---|---|---|---|---|
| | | | | | 시장 예상치 | 발표치 | 직전치 | 시장 대비 | 직전 대비 |
| 발표 | 2013-08-12 | 한국 | 수출 물가 지수 MoM | (%) | | -0.80 | 2.60 | | -3.40 |
| 발표 | 2013-08-12 | 한국 | 수출 물가 지수 MoM | (%) | | -1.50 | -2.00 | | 0.50 |
| 발표 | 2013-08-12 | 한국 | 수입물가지수 전월비 | (%) | | -0.80 | 2.10 | | -2.90 |
| 발표 | 2013-08-12 | 한국 | 수입물가지수 전년비 | (%) | | -4.30 | -4.30 | | 0.00 |
| 발표 | 2013-08-12 | 일본 | GDP 연간화 SA 전분기대비 | (%) | 3.60 | 2.60 | 3.80 | -1.00 | -1.20 |
| 발표 | 2013-08-12 | 일본 | 국내 CGPI 전년대비 | (%) | 1.90 | 2.20 | 1.20 | 0.30 | 1.00 |
| 발표 | 2013-08-12 | 일본 | 광공업생산 YoY | (%) | | -4.60 | -4.80 | | 0.20 |
| 발표 | 2013-08-12 | 일본 | 설비가동률 MoM | (%) | | -2.30 | 2.30 | | -4.60 |
| 발표 | 2013-08-12 | 일본 | 공작기계 수주 전년비 | (%) | | -12.10 | -12.40 | | 0.30 |
| 발표 | 2013-08-13 | 일본 | 기계수주 전년비 | (%) | 2.60 | 4.90 | 16.50 | 2.30 | -11.60 |
| 발표 | 2013-08-14 | 한국 | 실업률 | (%) | 3.20 | 3.20 | 3.20 | 0.00 | 0.00 |
| 발표 | 2013-08-16 | 한국 | PPI 전년비 | (%) | | -0.90 | -1.40 | | 0.50 |
| 예정 | 08-16~08-20 | 중국 | 외국인 직접투자 YoY | (%) | 14.00 | | 20.10 | | |
| 예정 | 2013-08-19 | 일본 | 무역수지 | (십억) | -773.50 | | -182.30 | | |
| 예정 | 2013-08-19 | 일본 | 수출 YoY | | 12.80 | | 7.40 | | |
| 예정 | 2013-08-19 | 일본 | 수입 YoY | | 16.00 | | 11.80 | | |
| 예정 | 2013-08-20 | 일본 | 전체산업 활동지수(전월대비) | (%) | -0.70 | | 1.10 | | |
| 예정 | 2013-08-22 | 중국 | HSBC 플래시 제조업 PMI | | 48.2 | | 47.7 | | |
| 예정 | 2013-08-22 | 한국 | 도소매 판매 (전년 대비) | (%) | | | 4.20 | | |
| 예정 | 2013-08-22 | 한국 | 백화점 판매 (전년 대비) | (%) | | | 4.10 | | |

**Exhibit 27 아시아 주요 증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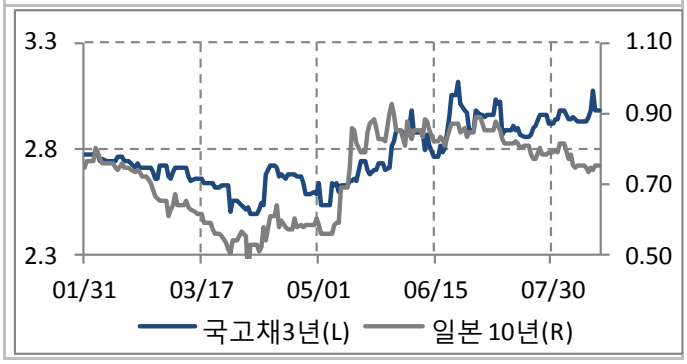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28 원화 환율 추이**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199 한국 국고채 3 년 VS 일본 10 년 추이**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30 아시아 주요국 수익률**

| | 종가 | 수익률(%) | | | |
|---|---|---|---|---|---|
| | | (1 주) | (1 개월) | (3 개월) | (YTD) |
| MSCI Asia Pacific | 134.3 | 0.3 | -1.1 | -5.7 | 3.9 |
| MSCI EM | 958.1 | 0.7 | -0.1 | -8.4 | -9.2 |
| 한국 KOSPI | 1,920.1 | 2.1 | 1.7 | -3.4 | -3.9 |
| 일본 NIKKEI 225 | 13,650.1 | 0.3 | -6.6 | -9.8 | 31.3 |
| 중국 상해종합 | 2,068.5 | 0.8 | 1.2 | -9.4 | -8.8 |
| 홍콩 항생 | 22,517.8 | 3.3 | 5.4 | -2.4 | -0.6 |
| 호주 ASX 200 | 5,113.9 | 1.2 | 2.7 | -1.3 | 10.0 |
| 뉴질랜드 NZX 50 | 4,513.9 | -0.4 | -1.4 | -1.8 | 11.0 |
| 인도 SENSEX 30 | 18,598.2 | -1.0 | -6.8 | -8.3 | -4.3 |
| 싱가포르 STI | 3,197.5 | -1.0 | -0.3 | -7.3 | 1.0 |
| 태국 SET | 1,445.8 | 0.9 | -0.8 | -11.2 | 3.9 |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4,568.7 | -1.6 | -2.4 | -11.2 | 5.8 |
| 필리핀 PSEi | 6,526.0 | 1.9 | -0.7 | -10.4 | 12.3 |
| 베트남 호치민 | 507.8 | 1.4 | 2.1 | 4.1 | 22.7 |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31 아시아 주요 종목 등락률**

| 국가 | 종목명 | 섹터 | 시가총액 (USD bn) | 수익률(%) (1 주) | (1 개월) |
|---|---|---|---|---|---|
| 중국 | GREAT WALL MOTOR CO LTD-A | 경기소비재 | 19.7 | 19.5 | 21.4 |
| 중국 | INNER MONGOLIA BAOTOU STEE-A | 소재 | 11.1 | 16.7 | 21.2 |
| 중국 | GUANGZHOU AUTOMOBILE GROUP-A | 경기소비재 | 7.9 | 15.7 | -1.3 |
| 중국 | KANGMEI PHARMACEUTICAL CO-A | 헬스케어 | 8.0 | 8.4 | 8.7 |
| 중국 | SAIC MOTOR CORPORATION LTD-A | 경기소비재 | 23.9 | 6.9 | -1.4 |
| 중국 | JIANGSU HENGRUI MEDICINE C-A | 헬스케어 | 8.0 | 6.7 | 28.3 |
| 중국 | CHENGDU DR PENG TELECOM-A | 통신서비스 | 3.8 | 6.3 | 30.9 |
| 일본 | INPEX CORP | 에너지 | 15.5 | -9.7 | -10.5 |
| 일본 | SOFTBANK CORP | 통신서비스 | 77.7 | -9.6 | 8.3 |
| 일본 | TOKYO GAS CO LTD | 유틸리티 | 13.6 | -7.6 | -7.3 |
| 일본 | SEVEN & I HOLDINGS CO LTD | 필수소비재 | 32.9 | -7.5 | -9.1 |
| 일본 | EAST JAPAN RAILWAY CO | 산업재 | 31.6 | -7.4 | -7.7 |
| 한국 | SK INNOVATION CO LTD | 에너지 | 11.8 | -6.9 | 2.5 |
| 일본 | JAPAN TOBACCO INC | 필수소비재 | 69.8 | -6.3 | -9.9 |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32 아시아 주요 채권 지표**

| 주요 채권 | 종가(%) | 수익률(bp) (1 주) | (1 개월) | (3 개월) |
|---|---|---|---|---|
| 한국 국채 5년 | 3.29 | 6.0 | 11.6 | 59.5 |
| 일본 10년 | 0.75 | -0.1 | -6.4 | -4.0 |
| 중국 10년 | 3.94 | 10.4 | 32.9 | 51.7 |
| 호주 10년 | 3.97 | 26.0 | 22.4 | 80.4 |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20 달러 환율 추이**

| 주요 환율 | 종가 | 통화가치 변동률(%) (1 주) | (1 개월) | (3 개월) |
|---|---|---|---|---|
| KRW/USD | 1,113.59 | -0.12 | 0.72 | 0.32 |
| JPY/USD | 97.53 | -1.35 | 2.18 | 5.82 |
| CNY/USD | 6.11 | 0.13 | 0.34 | 0.44 |
| AUD/USD | 1.09 | -0.23 | -0.28 | -5.61 |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 ➢ 한국

전주 한국증시는 유럽 경제지표 호조에 힘입어 2.1% 상승 마감을 하였다.

주 초반 삼성전자 저평가 인식확대 및 자사주 매입 루머 등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집중되며 KOSPI 는 상승세로 출발한 이후, 유럽 경제지표 호조와 중국 연착륙 가능성 증가로 외국인과 연기금이 12 일에서 16 일까지 9,255 억원의 동반 순매수에 나서며 지수 상승을 견인하였다. IT, 화학과 자동차 섹터는 외국인의 강한 순매수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전력수급 우려가 불거지며, 유틸리티 주들은 강보합에 그쳤다.

**Exhibit 39 증시 주변자금 현황**

| (십억원) | Close | 1W(△) | 1M(△) | 3M(△) | 6M(△) | YTD(△) |
|---|---|---|---|---|---|---|
| 고객예탁금 | 17,716.5 | -432 | -343 | -288 | 1,254 | -298 |
| 국내 주식형 펀드 | 92,100 | 140 | -502 | 794 | -739 | -2,287 |
| 신용융자(KSE+KOSDAQ) | 4,650 | 47 | 180 | -122 | 568 | 738 |
| MMF | 70,634 | 982 | -10,541 | -2,341 | -10,115 | 6,963 |

*Source: FnGuide, 리딩투자증권*

**Exhibit 40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 (누적, KSE+KSQ, 십억원) | 주간 | 월간 | 3 개월 | 6 개월 | YTD |
|---|---|---|---|---|---|
| 외국인 | 651.5 | 1,559.4 | -2,387.1 | -6,281.0 | -7,765.8 |
| 기관투자가 | 128.5 | 748.7 | 3,489.9 | 8,995.2 | 10,075.9 |
| (연기금) | 307.9 | 1,686.1 | 3,018.9 | 5,327.9 | 6,800.6 |
| 개인 | -770.9 | -2,112.9 | -783.1 | -1,600.0 | -1,035.1 |
| 기타 | -9.1 | -195.3 | -319.7 | -1,114.2 | -1,275.0 |

*Source: FnGuide, 리딩투자증권*

**Exhibit 41 글로벌 증시 대비 국내 증시 변동**

| 섹터 | 주간수익률(%) | | | 투자자매매동향 (5 일 누적, 십억원) | | |
|---|---|---|---|---|---|---|
| | 한국 | MSCI AC | 편차 | 기관 | 외국인 | 개인 |
| **전체** | 1.9 | -1.0 | 2.8 | 146.6 | 669.9 | -801.1 |
| **에너지** | 3.5 | -0.6 | 4.1 | 46.1 | -3.2 | -43.0 |
| **소재** | 3.0 | 1.2 | 1.8 | 66.1 | 133.8 | -196.0 |
| **산업재** | 1.1 | -0.8 | 1.9 | -6.1 | 58.0 | -44.5 |
| **경기소비재** | 2.3 | -1.7 | 4.0 | -37.2 | 161.6 | -125.0 |
| **필수소비재** | 0.1 | -2.1 | 2.1 | 15.0 | -48.6 | 29.6 |
| **의료** | -2.6 | -2.0 | -0.6 | -38.2 | -11.2 | 52.8 |
| **금융** | -0.4 | -0.7 | 0.3 | -56.1 | 23.6 | 32.0 |
| **IT** | 3.4 | -0.1 | 3.4 | 174.2 | 345.5 | -510.1 |
| **통신서비스** | -0.8 | -1.4 | 0.6 | -25.6 | -4.5 | 28.8 |
| **유틸리티** | 0.9 | -2.5 | 3.4 | 8.5 | 14.8 | -25.6 |

*Source : IBES, FnGuide, 리딩투자증권*

**Exhibit 42 주간 투자주체별 주요 순매수 종목**

| 주간 기관 순매수 | | 주간 외국인 순매수 | |
|---|---|---|---|
| 종목명 | 순매수 (십억원) | 종목명 | 순매수 (십억원) |
| 삼성전자 | 77.0 | 삼성전자 | 179.7 |
| SK하이닉스 | 75.6 | SK하이닉스 | 112.3 |
| 골프존 | 23.9 | 현대차 | 94.0 |
| LG전자 | 21.3 | 기아차 | 88.5 |
| GS | 17.8 | 신한지주 | 55.9 |

*Source : FnGuide, 리딩투자증권*

**Exhibit 43 주간 투자주체별 주요 순매도 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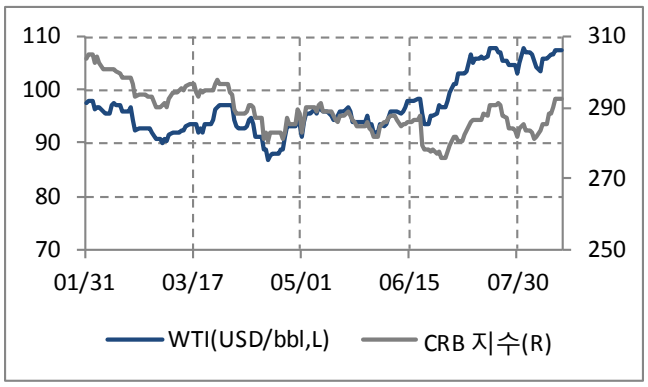
| 주간 기관 순매도 | | 주간 외국인 순매도 | |
|---|---|---|---|
| 종목명 | 순매수 (십억원) | 종목명 | 순매수 (십억원) |
| 효성 | -34.0 | KT | -33.8 |
| 신한지주 | -31.8 | 대우조선해양 | -25.1 |
| 에스엠 | -23.1 | KB금융 | -20.7 |
| SK텔레콤 | -21.3 | 삼성물산 | -20.3 |
| 현대건설 | -18.2 | 넥센타이어 | -14.2 |

*Source : FnGuide, 리딩투자증권*

## 4. 원자재 가격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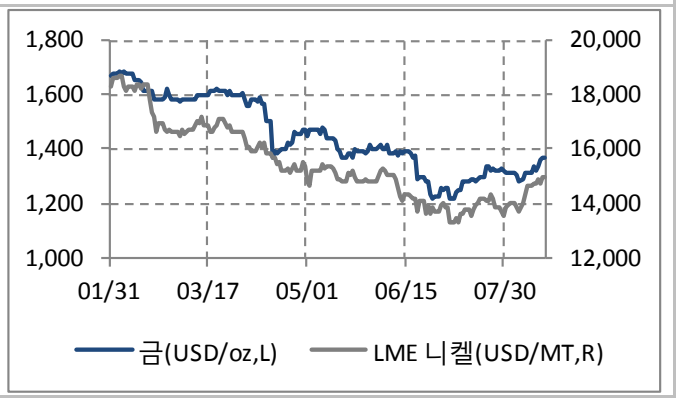
유럽과 중국 경제지표 호조로 WTI 는 1.4% 상승을 보였으나 이집트의 정정불안이 커지면서 Brent 는 3.1% 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미국 양적완화 축소 우려로 약세를 보이던 금 가격은 7 월 중국 수출입 지표가 호조에 따른 귀금속 수요 증가 기대감으로 4.5% 상승하였고 은은 14.2% 급등세를 보였다. 7 월 이후 급락세를 보였던 농산물 가격은 주요 생산국가의 가뭄이 지속됨에 따라 소폭 상승하였다. BDI 는 유가 상승과 유럽-중국 북극해 운항노선 개통으로 10.1% 급등하였다.

**Exhibit 44 원유(WTI) 와 CRB 상품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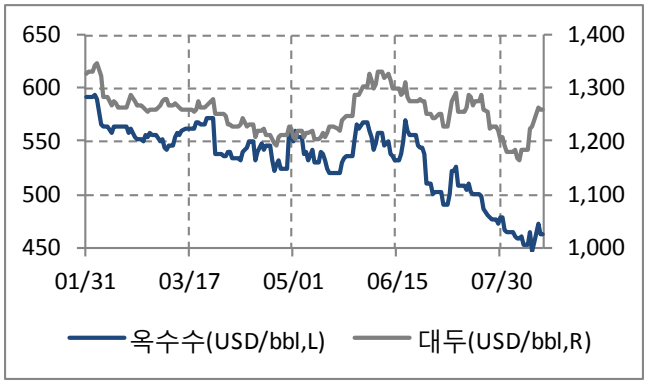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45 금과 LME 니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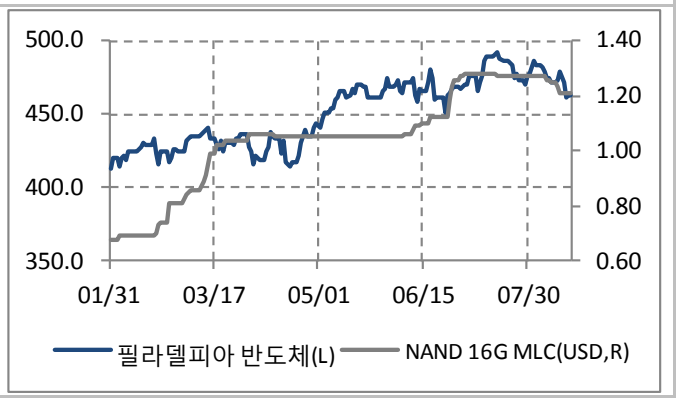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46 옥수수와 대두**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47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낸드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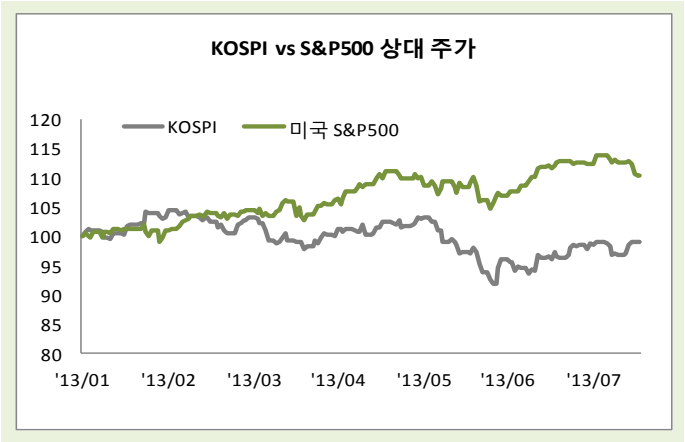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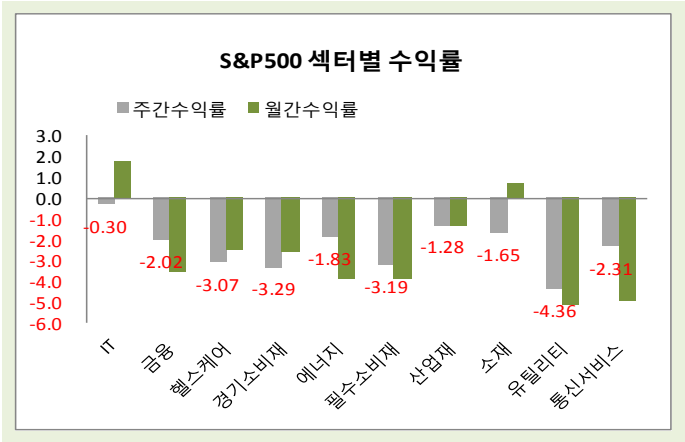
**Exhibit 48 주요 원자재 가격 동향**

| 주요 원자재 | 종가 (USD) | 수익률(%) (1 주) | (1 개월) | (3 개월) | (YTD) |
|---|---|---|---|---|---|
| WTI(NYMEX) | 107.5 | 1.4 | 0.9 | 11.9 | 17.0 |
| Brent(ICE) | 110.4 | 3.3 | 2.3 | 6.4 | 4.4 |
| 천연가스(NYMEX) | 3.4 | 4.3 | -7.2 | -18.3 | -6.4 |
| 금(NYMEX) | 1,371.0 | 4.5 | 7.2 | 0.2 | -18.7 |
| 은(CME) | 23.4 | 14.2 | 20.1 | 4.0 | -23.2 |
| 구리(LME) | 7,400.0 | 1.7 | 7.4 | 1.3 | -6.7 |
| 아연(LME) | 2,006.0 | 3.2 | 8.2 | 9.0 | -3.6 |
| 니켈(LME) | 15,000.0 | 2.2 | 7.4 | 1.2 | -12.1 |
| 알루미늄(LME) | 1,945.0 | 4.0 | 7.8 | 5.2 | -6.2 |
| CRB 상품지수 | 292.5 | 2.5 | 1.6 | 1.7 | -0.9 |
| 밀(CBOT) | 643.5 | -0.6 | -5.1 | -9.0 | -21.6 |
| 옥수수(CBOT) | 463.5 | 2.3 | -7.7 | -10.8 | -22.7 |
| 대두(CBOT) | 1,259.3 | 6.5 | -1.9 | 2.5 | -3.3 |
|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 462.5 | -2.0 | -5.9 | -1.7 | 20.4 |
| NAND 16Gb MLC | 3.0 | 0.0 | -0.3 | 0.3 | 57.1 |
| DDR3 1G 1333MHz | 1.2 | -3.2 | -4.7 | 15.2 | 80.6 |
| Baltic Dry Index | 1,102.0 | 10.1 | -4.3 | 31.0 | 57.7 |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 5. 미국 섹터/종목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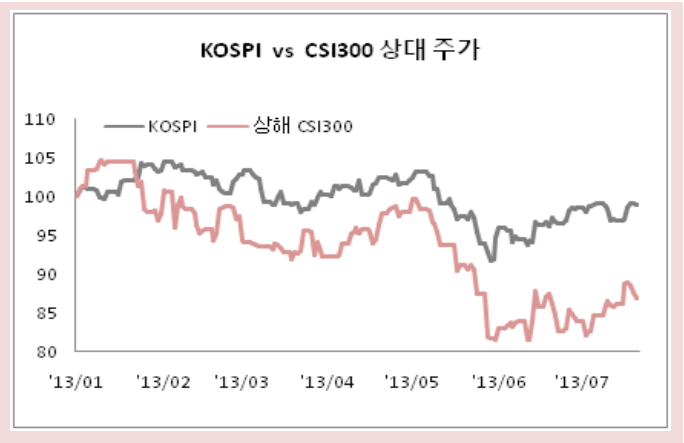

| 섹터 | 종목명 | 티커 | 주간(%) | 섹터 / 종목 이슈 |
|---|---|---|---|---|
| 에너지 | 엑슨모빌 | XOM | -3.1 | ■ **멕시코,** 75 년간 지속해 왔던 국가의 석유 및 가스의 생산 독점을 끝낼 조짐을 보이고 있음. 이 조치로 세계 최대 미개발 유전 중 일부가 민간 기업에게 개방되고 미국 국경 부근에서 새로운 에너지 붐을 위한 기초가 마련될 것으로 보임. 석유기업들이 관심을 가질지의 여부는 앞으로 나올 일련의 부수적 법안내 중요 세부사항들에 의해 결정될 것. 한편 멕시코가 영토 내에서 탐사, 시추를 할 수 있는 업체 수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음. 그 대상은 엑손모빌, 로열더치 셸, 쉐브론 등 심해 프로젝트와 셰일 시추에 기술적 전문성을 보유한 대형 기업들로 집중될 수 있음 // 3 대 에너지 업체 중 슐럼버그의 주가 흐름 견조 |
| | 셰브론(CVX) | CVX | -2.1 | |
| | 슐럼버그(SLB) | SLB | 1.8 | |
| 소재 | 몬산토 | MON | -1.3 | ■ **SPDR 골드트러스트,** 수 개 분기 동안 금에 대한 매수 포지션을 유지했던,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 존 폴슨과 조지소로스가 지난 2 분기 지분을 절반 넘게 정리하는 등 금 관련 ETF 의 수익률 부진했으나 최근 금 수요가 다시 되살아 나고 있음. 주요 수요는 인도와 중국의 귀금속과 동전, 골드바 매입에 소비자들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음 |
| | 모자이크 | MOS | 0.8 | |
| | 바릭골드 | ABX | 11.0 | |
| 산업재 | GE | GE | -1.2 | ■ **산업재 섹터, 중국,** 유럽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면, 산업재 섹터의 펀더멘털 회복이 주목 받을 수 있을 것. 또 하반기 설비투자 등기 재기 되며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br>■ **FedEX,** Logistics Management 메거진에 따르면 Annual Quest for Quality Award 에서 Fedex 의 6 개 자회사들이 높은 등급 차지. 6 개 회사 중 4 개 회사가 5 개 부문에서 1 위 |
| | 캐터필러 | CAT | 0.8 | |
| | FedEX | FDX | 0.4 | |
| 경기소비재 | 아마존닷컴 | AMZN | -4.2 | ■ **주택관련주,** 주택 지표 양호하지만 단기적으로 금리 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이를 반영하여 Pulte (PHM), Lennar (LEN), KB Homes (KBH), D.R. Horton (DHI) Home Depot (HD), Lowe's (LOW)) 등 주택 관련 종목들로 구성된 iShares Dow Jones US Home Construction (ITB)도 약세를 보이고 있음. 양적 완화로 모기지 금리가 하락한 지난 2011 년 10 월 저점 이후 상승세가 지속되며 현재까지 약 140% 상승했으나 QE 축소 우려로 모기지 금리가 상승하면서 5 월 20 일 이후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단기적인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br>■ **홈디포,** 주택 관련 주 중 LOWE'S(LOW)와 홈디포(HD)가 가장 견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지난 주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상승 추세 유지될 것으로 판단. 특히 홈디포는 미국의 주택 수요 증가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으면서 재고 개선, 매출 증가 효과를 누리고 있음. 모기지 관련 우려에도 대형 건축 수요 대비 소형 건축 수요가 견조해 경쟁사 대비 우위에 있음 // S&P500 리테일 관련 주 32 개의 종목 중 빅토리아시크릿 소유 회사인 L Brands Inc. (LTD)와 자동차 부품 체인 업체인 O'Reilly Automotive Inc.(ORLY)의 수익률 견조 |
| | 홈디포 | HD | -4.5 | |
| | L Brands Inc. | LTD | -3.6 | |
| 필수소비재 | 월마트 | WMT | -3.6 | ■ **월마트, 미국 최대 소매유통업체 월마트. 저조한 2 분기(5~7 월) 실적을 공개**<br>월마트는 2 분기에 40 억 7000 만달러(1.3% YOY)의 순익을 기록. 같은 기간 매출은 1169 억달러로, 1 년 전의 1143 억달러에 비해 2.3% 늘어났지만, 시장 전망치에는 못 미쳤음. 특히, 미국에서의 동일점포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0.3% 감소. 이는 0.7% 증가할 것이라는 시장 예상치와 상반되는 수준. 이에 따라 월마트는 올 회계연도 연간 순익 전망치도 종전 전망에서 주당 5.10~5.30 달러로 낮췄음. 브라이언 야브로 에드워드존스 애널리스트는 "월마트는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br>■ **JC 페니,** 헤지펀드 메니저 윌리엄 애크먼이 JC 페니의 이사직에서 물러나면서 주가 급등 |
| | P&G | PG | -2.1 | |
| | 제이시페니 | JCP | 4.1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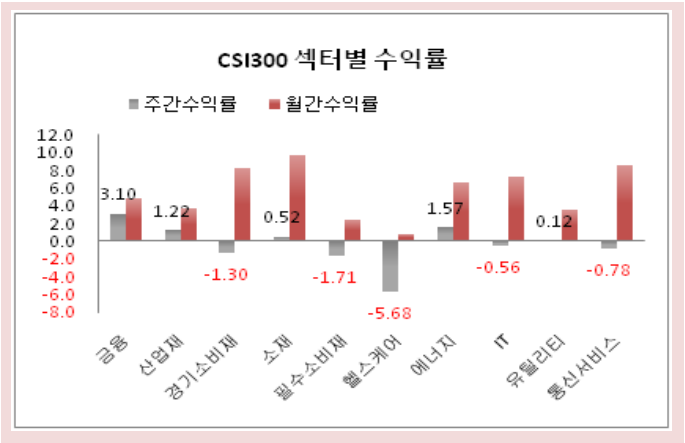
| 섹터 | 종목명 | 티커 | 주간(%) | 섹터 / 종목 이슈 |
|---|---|---|---|---|
| 헬스케어 | 존슨앤존슨 | JNJ | -3.2 | ■ **존슨앤존슨**, 유로존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럽에 노출이 큰 미국의 다국적기업들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 월그린 처럼 미국내 시장에 집중하는 기업보다 존슨앤존슨과 같이 유럽 지역에 노출이 큰 기업이 주목받을 수 있을 것<br>■ **악티비스,** 8 월 14 일 52 주 신고가 기록. 동사의 펀더멘털이 제약업계 중 주목받은 바 있음. 악타비스의 글로벌 매출이 6.7% 증가하며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 지난 주 동사의 주가가 견조했으나 길리어드, 암젠, 셀진 등 대부분의 제약 종목의 주가가 부진했음. 따라서 악티비스의 상대적 펀더멘털 강세가 부각되고 있는 것 |
| | 화이자 | PFE | -2.9 | |
| | 악티비스 | ACT | 0.5 | |
| 금융 | 웰스파고 | WFC | -1.1 | ■ 미국 규제 당국이 골드만삭스와 JP 모건체이스, 글렌코어 등 상품 투자 은행과 기업들에 소환장을 보내고 금속 창고업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음.<br>■ **S&P500 금융주,** 전 주 크게 하락한 금융주에 대한 반발 매수가 나오면서 S&P500 지수 대비 견조한 수익률을 기록했음. 주목할 점은 연초 대비 경기소비재, 헬스케어와 함께 섹터 내 우수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으나 민감주인 금융 섹터의 조정 양상은 비교적 미약한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보임. 특히 지난 주 뱅크오브아메리카가 0.2% 하락에 그치며 상대적 수익률이 우수했음. 경기 회복 가시화가 부각되면 추가적 상승 가능할 것 |
| | JP모건 | JPM | -2.3 | |
| | 뱅크오브아메리카 | BAC | -0.2 | |
| IT | 애플 | AAPL | 10.5 | ■ **애플,** 억만장자 투자자인 칼 아이칸의 긍정적인 발언에 힘입어 지난 1월 말 이후 처음으로 500달러를 넘어섰음. 아이칸은 애플이 지나치게 저평가 돼 있다고 보고 자사주 매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 또 애플이 차입능력이 강력한 데 비해 부채는 상대적으로 적고 주자수익비율(PER)은 낮다고 덧붙임. 주간 단위로 10.% 상승<br>■ **시스코시스템즈,** 네트워킹 장비 업체 시스코시스템즈가 부진한 4 분기(4~6 월) 실적 발표에 인력까지 감축한다는 방침을 밝혔음. 4 분기 주당 조정순익은 52 센트를 기록해 시장 전망치 51 센트에 못 미쳤음. 전체 인력의 5%인 4000 명의 인력을 감축한다는 것. 매출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일본과 중국, 유럽시장에서의 판매가 부진. 오는 1 분기(7~9 월) 매출 전망을 122 억~125 억달러로 발표. 이는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평균 125 억달러를 밑도는 수준 |
| | 페이스북 | FB | -3.7 | |
| | 시스코시스템즈 | CSCO | -6.8 | |
| 통신서비스 | AT&T | T | -1.8 | ■ **버라이즌커뮤니케이션즈,** 캐나다 시장 진출 예상보다 늦어질 것<br>버라이즌이 인수를 결정지은 캐나다 통신사 두곳에 대해 승인이 내년 이후로 미뤄질 전망. 현재 캐나다는 이동통신용 주파수 경매 작업을 진행중이고, 실제 경매는 내년 1 월. 시장 진출은 늦어 졌어도, 새 주파수를 확보하는 경매까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앞서 버라이즌은 '윈드모바일', '모빌리시티' 등 캐나다 현지 통신사를 인수하며 캐나다 시장 진출을 위해 준비중인 것으로 보여짐 |
| | 버라이즌컴즈 | VZ | -3.3 | |
| | T 모바일 US | TMUS | -5.5 | |
| 유틸리티 | 듀크에너지 | DUK | -5.3 | ■ **유틸리티, 통신 서비스,** 미국의 9 월 양적 완화 출구 전략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난 주 미국 10 년 국채 수익률이 2.8%를 기록하며 급등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배당 수익률이 높은 섹터이자 방어주인 유틸리티와 통신서비스가 하락했음. 채권 수익률 상승은 높은 배당 수익률 매력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 특히 S&P500 유틸리티 섹터가 주간 단위로 4.4% 하락하면서 10 개 섹터 내 최하위 수익률을 기록했음 |
| | 서던 | SO | -3.4 | |
| | 엑셀론 | EXC | -3.5 | |

**Any Comment or News**

- ✓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속적으로 주식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음. 2분기말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기업은 웰스파고(21.5%), 코카콜라(18.0%), IBM(14.6%), 아메리칸익스프레스(12.7%), P&G(4.6%), 월마트(4.1%), US뱅코프(3.2%), 디렉TV(2.6%), 다비타헬스2.0%), 필립스66(1.8%) 순임. 단, 벤치마크 S&P500 대비 수익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 세계 최대 채권 펀드인 핌코에 따르면 앞으로 장기 채권에 대한 투자를 줄여야 할 필요가 있겠지만, 이로 인해 채권에서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대이동(Great Rotation)이 일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
- ✓ 대형 투자자들이 저평가된 유럽시장으로 이동 : 미국 기반 펀드로부터 유럽 주식시장으로 자금 유입 많음. 톰슨 로이터에 따르면 지난 주(14일 기준) 유럽 주식에 투자하는 92개 펀드사들은 7억5500만 달러의 순유입. 이는 6월 중반에 기록된 11억7000만달러 순유입 이후 최대 규모. 그 직전주에도 유럽주식 펀드는 5억8000만 달러를 흡수

## 6. 중국 섹터/종목 뉴스




| 섹터 | 종목명 | 티커 | 주간(%) | 섹터 / 종목 이슈 |
|---|---|---|---|---|
| 석유화학 | 페트로 차이나 | 0857 | 2.5 | ■ 시노펙, 무한에서 연 80 만 톤 규모를 생산할 수 있는 에틸렌 생산공정이 성공적으로 상품생산에 성공. 이번에 성공한 에틸렌 합성은 중국이 모든 지식재산권을 가진 최초의 에틸렌 합성기술.<br>■ 페트로 차이나, 올해 말까지 600 개 이상의 LNG 충전소를 건설 예정.<br>■ 환경보호 관련 규정 위반으로 아프리카 가봉의 시노펙 자회사에 내줬던 유전 개발권 회수에 이어 아프리카 중북부 차드가 페트로 차이나의 유전 탐사를 중단. |
| | 시노펙 | 0386 | 5.0 | |
| | 시누크 | 0883 | 6.5 | |
| 리테일 | 궈메이 전기 | 0493 | 0.0 | ■ 올해 상반기 중국 B2C 가전제품 인터넷 구매 시장규모는 530 억 위안으로 전체 B2C 시장규모의 17.7% 비중을 차지. 업계인사에 따르면 2015 년까지 가전제품의 인터넷 구매 시장 판매량이 온오프라인 판매량의 15%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측. |
| | 우마트 스토어스 | 1025 | 3.7 | |
| | SaSa | 0178 | -2.8 | |
| 자동차 | 장성 자동차 | 2333 | 5.0 | ■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발전개혁위원회가 중국자동차딜러협회(CADA)를 통해 수입차에 대해 가격조사를 진행. 수입산 분유에 이어 자동차 업계에 불공정행위와 가격담합 조사가 진행 중.<br>■ 7 월 자동차 기업들의 자동차 수출량은 7.99 만대로 YoY-11.6%, MoM-5.4%으로 3 개월 연속 전년 대비 하락세를 보여 자동차 수출에 적신호. 1 월~7 월 누적 수출량은 56.75 만대로 YoY-2.2%. |
| | 지리자동차 | 0175 | 6.1 | |
| | BYD | 1211 | -0.3 | |
| 귀금속 | 쯔진광업 | 2899 | 14.2 | ■ 중국황금협회, 올해 상반기 황금 소비량 706.36 톤으로 YoY+54%.<br>■ 발전개혁위원회, Laofengxiang 등 상해시의 5 개 금은방에 대해 가격독점으로 1,009.37 만 위안의 벌금 부과. |
| | 자오진광업 | 1818 | 34.1 | |
| | 귀금속 자원 | 1194 | -3.2 | |
| 항공운수 | 남방항공 | 1055 | 8.2 | ■ 동방항공, 제주도를 방문하는 여행객 급증으로 무한-상해-제주를 잇는 신규 항공 노선을 구축 예정.<br>■ 중국국제항공, 50 억 위안규모의 채권발행 예정. 조달자금 중 40 억 위안은 일반 경영비용으로, 10 억 위안은 은행대출 상환으로 사용 예정. |
| | 동방항공 | 0670 | 11.6 | |
| | 국제항공 | 0753 | 4.3 | |

| 섹터 | 종목명 | 티커 | 주간(%) | 섹터 / 종목 이슈 |
|---|---|---|---|---|
| 철도운수 및 설비 | 중국남차 | 1766 | 6.7 | ■ 중국철도건설투자공사(CRIC), 시속 250Km 고속열차 91 대 구매 프로젝트에 대한 공개 입찰 시작. 중국남차, 고속철도 입찰 시장 재가동으로 인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측.<br>■ 중국남차, 파키스탄에서 63대의 간선 내연기관 자동차 신규주문을 받음. |
| | 중국 철도그룹 | 0390 | 2.7 | |
| | 중국 철도건설 | 1186 | -0.3 | |
| 금융 | 중국 공상은행 | 1398 | 7.3 | ■ China Merchants Bank(3968 HK), A 주에 이어 H 주 증자방안도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비준을 통과. 350 억 위안 규모의 A+H 주 증자를 통한 자금은 전부 은행 자본확충에 사용예정.<br>■ 농업은행, 중국 상하이 지역 인프라 프로젝트에 2,500 억 위안 대출해주기로 합의.<br>■ 은감회, 올해 상반기 상업은행의 순이익 7,531 억 위안으로 YoY+13.83%. 2 분기말 은행업 금융기관 자산규모는 144.2 조 위안으로 YoY+13.78%, 부실대출규모는 5,395 억 위안으로 2009 년 2 분기 이래 최대규모 기록. |
| | 중국 농업은행 | 1288 | 12.9 | |
| | 초상은행 | 3968 | 15.1 | |
| IT | 넷드래곤 | 0777 | 1.6 | ■ ZTE 통신, 나이지리아 정부와 4.17 억 달러 규모의 국가 공공서비스 통신시스템(NPSCS)준공을 협의.<br>■ 레노버그룹, 1 분기 매출액 88 억 달러로 YoY+10%, 순이익 1.74 억 달러로 YoY+23% 기록하여 세계 최대 PC 공급업체로 자리매김.<br>■ 8 월 14 일, 바이두는 18.5 억 달러로 넷드래곤이 보유한 91 와이어리스의 지분 전량 인수. |
| | 레노버그룹 | 0992 | 6.3 | |
| | ZTE 통신 | 0763 | 6.7 | |
| 통신서비스 | 차이나 모바일 | 0941 | 0.8 | ■ 국무원은 <정보소비를 통한 내수시장 확대에 관한 의견>을 발표. 2015년까지 정보소비 규모를 연평균 20% 이상 성장시켜 3.2조 위안을 목표.<br>■ 차이나 모바일 시궈화 회장은 애플과 아이폰 도입관련 협상을 진행 중으로 비즈니스와 기술적인 문제가 존재하여 해결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함.<br>■ 공업정보화부, 올해 상반기 중국 정보소비(Information Consumption)규모는 2.02조 위안으로 YoY+20.7% |
| | 차이나 텔레콤 | 0728 | 2.3 | |
| | 차이나 유니콤 | 0762 | 4.9 | |
| 식품음료 | Want Want | 0151 | 3.7 | ■ 최근 멍뉴, 이리 등 프리미엄 우유가격을 5% 인상한다는 루머에 대해 양사 관계자는 가격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힘.<br>■ 8 월 15 일, 멍뉴의 야스리 인수합병 인수안이 최종 완성. 멍뉴는 야스리 발행주식의 89.92% 비중인 31.97 억 주를 인수. |
| | Mengniu Dairy | 2319 | -1.4 | |
| | 칭타우 맥주 | 0168 | -1.8 | |

**Any Comment or News**

- ✓ 8월 14일, 국무원은 <정보소비를 통한 내수시장 확대에 관한 의견>을 발표. 2015년까지 정보소비 규모를 연평균 20% 이상 성장시켜 3.2조 위안을 목표.
- ✓ 7월 신규 위안화 대출규모 6,999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598억 위안 증가, 전월 대비 감소세를 보였으나 시장 컨센서스 상회.
- ✓ 국무원,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산업발전 가속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 친환경 생산액 연 평균 15% 성장을 목표로, 2015년 까지 총 생산액 4.5조 위안을 목표.
- ✓ 농업은행에 이어 국책은행인 국가개발은행이 하북성,강소성,청해성과 각각 대규모 인프라 건설을 위한 자금 대출에 관한 MOU를 체결하여 지방정부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

*투자전략팀*

**Strategist 김재호 CFA**
(02)2009-7197
kimjh1@leading.co.kr

**Quant Analyst 정정원**
(02)2009-7068
jwjung@leading.co.kr

**미국 담당 (R. A) : 박지미**
(02)2009-7059
jmpark1@leading.co.kr

**중국 담당 (R. A) : 최미나**
(02)2009-7176
mncui@leading.co.kr

*©. 2013 **Leading Investment & Securities Co**. All rights reserved*